

“2028대입 안내· 탐구 주제 찾기 유용해요”

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@naeil.com



거주

광주 서구 동천동



자녀

고1, 초6



구독 기간

1년 11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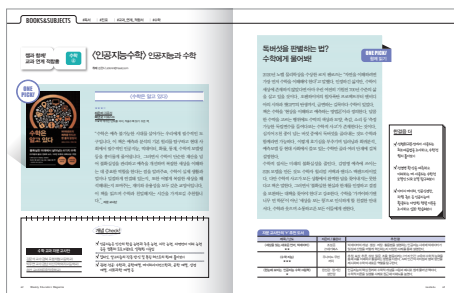
〈내일교육〉은 어떻게 구독했나요?

큰아이의 고입을 앞두고 고등학교 생활과 입시를 미리 대비하고자 정보를 검색하던 중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〈내일교육〉 기사를 보게 됐어요. 내용이 알차도움이 될 것 같았고 집으로 배송되는 교육 전문지라 매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 구독했죠.

〈내일교육〉을 어떻게 활용하나요?

큰아이가 고1인데 교육과정과 수능이 바뀌고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 때문에 입시에도 변화가 많아 불안했어요. 한 번씩 소개되는 5등급제의 현실에 대한 특

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



117호

쌤과 함께! 교과 연계 적합책_ 수학 ④

〈인공지능수학〉 인공지능과 수학

“학생의 생생한 체험담은 늘 흥미롭습니다. 큰아이가 공학에 관심을 갖는 터라 수학·과학 추천 도서와 학교 활동을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. 기사를 보고 〈인공지능수학〉을 선택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.”



118호

WEEKLY THEME_ 내신 5등급에서 최대 5%?

을 1등급 예측 틀렸다

“5등급제로 바뀐 내신에 걱정이 많았어요. 1등급이 10%로 늘어나 올 1등급이 많을 거라는 예측 때문이었죠. 여러 경로로 현실이 아님을 확인해 마음이 놓이지만 2~3학년은 여전히 걱정입니다. 후속 기사도 기대할게요.”

집 기사를 눈여겨보고 있어요. 대학에서 권장 과목을 안내하거나 대입안을 발표할 때도 발 빠르게 소개해줘서 도움이 됐고요. 일단 내신 성적을 높여 수시에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‘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’나 ‘교과 연계 적합書’가 많은 도움이 돼요. 수행평가나 탐구 활동의 주제나 소재가 막막할 때 비슷한 전공을 택한 합격생의 인터뷰나 추천 도서에서 물꼬를 찾기도 하거든요. 제가 먼저 읽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정리해서 참고하라고 알려줍니다.

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떤 점이 고민인가요?

겪어보니 5등급제도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. 차라리 9등급제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학부모도 많거든요. 1등급이 10%로 늘었지만 자칫 11%가 되어 2등급으로 밀려나면 34%와 같은 등급에 속하게 되니 억울하거든요. 2등급을 받아도 떨떠름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.

2028년 입시에서 대학마다 내신을 어떻게 반영할지 알 수 없어 더 불안합니다. 내신 성적을 더 올려야 할지, 진로 탐색이나 탐구 활동으로 세특을 더 보강해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. 앞으로 발표될 대학 전형안의 분석 기사도 기대할게요.

〈내일교육〉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?

최근에 수능까지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. 마침 둘째가 초6이라 귀가 쫑긋했죠. 제도가 바뀌면 첫 주자는 무척 부담스러울 텐데 피할 수 없다면 대책을 잘 세워야 겠죠. 〈내일교육〉이 발 빠르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 주리라 믿어요. @



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.
“안녕하세요! 〈내일교육〉 편집부입니다.”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,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.

Reporter's A/S

교육과정과 수능이 모두 바뀌고 5등급제가 도입되는 2028년 대입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. 평가 체계와 입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난 입시 결과를 활용할 수 없기에 불안은 더욱 큼니다. 대학도 많이 고민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입안을 준비하고 있고요. 그럼에도 여러 입시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가 입을 모아 강조하는 점은 학업 역량을 탄탄히 쌓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. 지난 기사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
본지 1177호
‘윤곽 드러나는 2028 대입,
역대급 변화? 틀은 그대로’
기사 참고

